



아토피 - 너무 깨끗이 키우지 마세요!

지난해 11월 경상남도에서 아토피에 걸린 어린 아이가 숨졌다. 그런데 이 아이의 사망 원인은 부모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 아토피에 걸린 딸을 병원 치료 대신 무속인에게 맡겨 이상한 민간요법 치료를 받게 했던 것이다. 무속인의 민간요법은 식초 요법이었다. 아토피로 거칠어진 피부에 식초를 바르는 것이다. 과거에는 무좀 치료에 좋다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피부에 식초를 바르면 피부가 상하게 되고 상한 피부를 통해 세균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피부과 의사들은 식초로 무좀을 치료하는 것을 절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의 연약한 피부에 식초를 발랐으니 어땠겠는가? 특히 식초의 독성으로 피부는 화상을 입는 것과 같게 되는데 아이가 겪었을 고통은 어떠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필자가 지금까지 다녀 본 의료 현장 중에서 가장 끔찍한 곳이 화상 치료 센터였다. 화상 입은 피부를 벗겨내고 치료를 하는데 이곳 저곳에서 고통의 비명을 질러댔다. 그 비명 소리는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처음으로 들어본 기가 막힐 소리였다. 아마도 지옥에서나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게다가 화상을 입은 환자들의 벌겍게 익고 여기 저기 딱지



이찬휘
SBS 과학정보부장

가 얇은 피부는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다.

이런 고통을 아이가 겪었으리라고 생각하니 저절로 몸서리가 치졌다. 결국 아이는 식초로 상한 피부를 통해 세균이 감염됐고 그 세균이 온몸으로 퍼지는 패혈증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아토피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5년 전만 해도 아토피 환자는 인터뷰 하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로 드물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늘었다.

게다가 아토피를 치료하는 병원에 가보면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심한 환자들이 많다. 특히 예전에는 아이들이 아토피에 걸렸을 경우 사춘기를 지나면서 증상이 사라졌다. 그런데 요즘은 그 증상이 어른이 되도 사라지지 않아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다.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서구화되고 있는 음식 또한 문제라고 한다. 고기 위주의 음식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또, 새집증후군 같은 실내공기 오염도 원인 중에 하나이다. 필자가 잘 아는 사람의 경우를 보면서 “환경오염이 아토피의 큰 원인이지구나!”라고 느낀 적이 있다. 그 분은 서울에 살았는데 10여년간 아토피로 고생을 했다. 잘 고친다는 병원이면 이 병원 저 병원을 다 다녀봤고 좋다는 약이면 이 약 저 약 다 먹어 봤지만 조금도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기만 했다. 그런데 누군가 그 분에게 생활 환경을 바꿔보라고 권했고 그 사람은 최후의 선택을 했다.

집을 공기가 좋은 양평으로 이사했다. 출퇴근시간이 2시간씩 하루 4시간 소요됐지만 공기가 좋은 곳을 택했다. 그런데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사한 지 한 달 만에 아토피가 거의 다 나은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완쾌돼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 비록 출퇴근 시간이 4시간이나 걸리지만 여유로운 마음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출퇴근을 즐기고 있다.

그런데 또 다른 충격적인 의견을 내놓는 의사선생님이 계셨다. 아이

환경오염이 아토피의 주 원인



들을 너무 깨끗이 키워서 아토피 환자가 많다는 주장이다. 필자는 아이들을 깨끗이 씻기고 깨끗이 입히고 깨끗한 생활환경에서 자라게 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정반대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것이다.

아토피는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병이다. 따라서 예방이 중요하다. 자주 좋은 공기를 마시러 가족과 함께 야외로 나가고 되도록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위주의 식사를 하고 아이들을 야외에서 마구 뛰놀게 하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